

## 자유에 대한 신자유주의적견해의 반동성

김 금 남

제국주의사상문화적침투를 철저히 분쇄하고 자유화바람의 침습을 막기 위하여서는 부르조아지들이 떠들어대고있는 《자유》의 기만성과 그 반동적본질을 똑똑히 알아야 한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당원들과 근로자들에게 제국주의자들과 그 앞잡이들이 떠드는 부르조아적자유의 반동성과 위험성을 똑똑히 인식시켜야 합니다.》(《김정일선집》증보판 제13권 22페이지)

오늘 자본주의사회에서 자유에 대하여 제일 요란스럽게 떠들어대고있는 사상조류는 신자유주의이다.

신자유주의는 1970년대 후반기에 발생하여 1980년대부터 자본주의나라들에서 널리 류포되였다. 대표적제창자는 미국의 프리드리히 하이에크(1899—1992)이다.

신자유주의라는 말은 이전의 자유주의가 다시 부활되였다는 의미를 담고있다. 원래 18~19세기에 자유경쟁, 국가의 간섭제거를 자본주의사회발전의 원천으로 본 자유주의사상이 자본주의를 변호하는 기본리념으로 류포되였다. 그것이 20세기 후반기에 다시 등장한것이 신자유주의이다.

신자유주의는 시장원리를 사회생활전반에 도입함으로써 멸망해가는 자본주의의 운명을 건져보려는 부르조아지들을 대변하여 약육강식의 자유경쟁이 인간사회의 자연적인 질서라고 주장하는 반동리론이다.

신자유주의는 완전한 자유방임을 반대하고 부르조아국가의 통제를 정당화한다는 측면에서 이전의 자유주의와 차이가 있으나 약육강식의 자유경쟁을 사회생활의 근본원리로 본다는 면에서는 공통성을 가지고있다.

신자유주의의 모든 주장은 자유에 대한 비과학적이며 반동적인 견해에 기초하고있다.

신자유주의는 자유를 다른 사람이나 외적요인의 간섭이나 방해를 받지 않는 상태이라고 주장한다. 그들에 의하면 자유란 방해받지 않고 간섭받지 않는것이며 그이외의 다른것,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니다. 한마디로 말하여 자유의 본질적요점은 간섭이 없는 상태라는것이다. 이에 대하여 하이에크는 《자유란 외부적간섭, 강제, 방해가 없는 상태이다.》고 하였다.

이처럼 신자유주의는 자유를 오직 외부의 간섭이 없는 상태로 규정함으로써 자유의 본질을 외곡하고있다.

인간은 자주성, 창조성, 의식성을 가진 사회적존재이다. 그러므로 자유문제는 어디까지나 인간이 자기의 자주적요구를 실현해나가기 위한 자주적이며 창조적인 생활과 결부시켜 론의하여야 한다.

사회적존재로서의 인간의 자유는 그 무엇에 예속되거나 구속되지 않고 자기의 자주적요구에 맞게 행동하고 생활하는 상태를 의미한다. 자유문제는 인간활동의 사회적측면과 계급적성격 등과 분리시켜 론의할수 없다.

자유에 대한 신자유주의적견해의 반동성은 첫째로, 외부적요인의 그 어떤 통제도 다

간섭이며 자유의 상실로 된다고 함으로써 사회적존재인 인간의 참다운 정치조직생활도 자유의 구속인것처럼 외곡한다는데 있다.

신자유주의자들은 자유의 본질을 《간섭의 부재》로 규정하면서 자유를 위해서는 외적요인의 간섭과 통제자체를 절대적으로 거부해야 한다고 떠벌이고있다.

이러한 자유에 대한 관점에 기초하여 오늘 부르조아사상가들은 사회주의사회에서 로동계급의 당조직과 당이 령도하는 정치조직에서의 정치조직생활을 마치 자유에 대한 《구속》인것처럼 혈뜰으면서 반대하고있다.

외부적요인의 간섭과 통제는 다 자유에 대한 구속이라는 신자유주의자들의 주장은 자유의 본질을 개인주의적립장에서 외곡한 궤변에 불과하다.

모든 사회성원들이 일정한 정치조직에 망라되어 조직생활을 하는것은 사회적존재로서의 사람의 본성에 맞는 정치사상생활방식이다. 사회적집단의 한 성원으로서 사람이 정치조직생활도 하지 않고 그저 먹고 살기만 한다면 그것은 사람의 생활이라고 말할수 없다.

신자유주의자들이 떠벌이는것처럼 사회주의사회에서의 정치조직생활은 자유에 대한 구속인것이 아니라 사회적인간의 자주적본성에 맞는 생활이며 자유실현의 조건으로 되는 것이다.

신자유주의자들이 자유의 미명밑에 온갖 간섭을 반대하는것은 자본가계급으로 하여금 그 어떤 제재도 받음이 없이 제마음대로 근로인민대중을 착취하고 약탈하도록 하려는 자본가계급의 요구를 반영한것이며 사회주의사회에서의 정치조직생활을 자유에 대한 《구속》으로 혈뜰으려는데 그 반동적목적이 있다.

자유에 대한 신자유주의적견해의 반동성은 둘째로, 자유를 자유로운 생활의 내용과 분리시킴으로써 동물의 생활과 구별되는 참다운 인간의 생활을 부정한다는데 있다.

신자유주의는 자유는 외부의 간섭이 없는 상태를 의미할따름이지 간섭이 없는 상태에서 인간이 진행하는 생활과는 분리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있다. 즉 간섭과 구속이 없으면 그것이 곧 자유이며 인간이 무엇을 하는가와 무관계하다는것이다.

자유가 인간생활의 내용과 관계없다는 신자유주의자들의 주장은 자유의 본질적내용을 거세하고 부르조아지들의 부패타락한 생활을 자유로운 생활로 분칠해보려는 궤변에 불과하다.

자유라는 개념자체가 자주적요구를 실현하기 위한 인간의 생활에서 제기되는 문제이다. 인간의 자주적인 생활을 떠난 추상적인 자유란 있을수 없다. 따라서 자유를 론할 때에는 반드시 어떤 자유인가, 자유로운 생활의 내용이 무엇인가 하는것을 따져보아야 한다. 인간의 자주적요구를 실현하기 위하여 자유가 필요되는것이며 자주적요구와 무관계한 자유란 없는것이다.

자주성은 자유를 위한 투쟁의 원천을 이루는 인간의 속성이다. 사람들은 자주성을 가지고있음으로 하여 자유를 요구하며 자유를 위한 투쟁을 벌리게 된다.

자주성은 자유와 자유가 아닌것을 가르는 기준이다. 자주적인 요구에 맞게 하는 행동은 자유이지만 그에 어긋나게 하는 모든 행동은 자유가 아니다. 자주적요구에 맞지 않고 그 실현에 이바지하지 못하는것은 자유라고 할수 없다. 자주적요구에 부합되고 그 실현에 이바지하는것이 바로 진정한 자유인것이다.

그러므로 자유롭게 사는것은 인간의 본성적요구이지만 어떤 내용의 생활을 자유롭게

하는가 하는것은 따져보아야 한다. 동물과 같은 생활은 아무리 자유롭게 하여도 그것은 역시 동물의 생활이지 인간의 생활은 아니다.

주체사상이 요구하는 생활은 인민대중이 국가와 사회의 주인으로서 보람있게 사는 자주적인 생활이다. 자주적인 생활은 그 무엇에 예속되어 살지 않는다는 점에서는 자유로운 생활이다. 그러나 자주적인 생활에서는 자유자체가 목적으로 되고있는것이 아니라 국가와 사회의 주인으로서의 지위를 차지하고 주인으로서의 역할을 하면서 사는것이 참다운 삶의 목적으로 되고있다. 개인의 육체적욕망을 아무리 자유롭게 충족시키면서 산다하더라도 국가와 사회의 주인으로서의 임무와 역할을 하지 않는다면 그러한 생활은 본질상 동물의 생활과 다름이 없다.

신자유주의적자유론은 남이야 어떻게 되든 자기 개인의 이익, 개인의 육체적쾌락이나 충족시키면 된다는 부르조아계급의 타락한 생활을 그대로 반영한 반동적인 자유론이다.

자유가 인간의 생활과 무관계하다는 신자유주의적자유론은 자유를 인간의 자주적인 생활과 분리시킴으로써 개인의 육체적쾌락에서 만족을 찾는 부르조아지들의 동물적인 생활을 정당화하자는데 그 반동적목적이 있다.

자유에 대한 신자유주의적견해의 반동성은 셋째로, 자유를 자유실현능력과 분리시킴으로써 불평등하고 부익부, 빈익빈의 자본주의사회를 합리화한다는데 있다.

신자유주의는 자유가 인간의 자유실현능력과 분리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있다. 즉 자유는 자유로운 인간이 무엇을 할수 있느냐 하는 문제와 관계가 없다는것이다.

신자유주의자들에 의하면 자유는 인간이 그가 원하는것을 할수 있는 능력과는 관계가 없다. 즉 자유는 외부적요인의 강제가 최소한으로 줄어든 상태, 외부적요인의 자의적의지에서 벗어나있는 상태일뿐이라는것이다.

그러나 인간의 능력과 분리된 자유란 있을수 없으며 그것은 하나의 공상에 불과한것이다.

사람은 창조성을 가지고있는것으로 하여 자주성을 실현할수 있다. 사람의 활동목적, 요구는 저절로 실현되지 않으며 일정한 힘이 발양되어야만 실현될수 있다. 마찬가지로 사람이 자주성을 가지고있고 그 수준이 아무리 높다하여도 창조성, 창조적능력이 없으면 객관세계가 사람의 자주적요구에 맞게 실지로 개변될수 없으며 자주적요구를 실현할수 없다. 창조성이 높고 그것이 높이 발양될수록 자주성은 더 잘 실현되게 된다.

사람들의 자주적인 요구가 그들의 창조적인 능력에 의하여 실현되는것만큼 자유는 결국 창조적능력에 의하여 보장되게 된다. 사람들의 창조적능력은 자주적인 요구의 실현능력이다. 외부세계에 대한 사람들의 지배능력이 커지면 지배의 범위가 커지고 지배의 수준이 높아지며 따라서 사람들은 더 자유로운 존재로 된다. 창조적인 능력이 없이는 결코 자유로운 활동을 벌릴수 없다. 사람은 창조적능력을 가지고있음으로 하여 자유를 위한 투쟁을 벌려나가며 자유로운 생활을 누리게 된다.

신자유주의자들이 자유는 능력과 무관계하다고 하면서 물에 빠져 나오지 못해 허우적거리며 죽어가는 사람도 누가 나오는것을 방해하지만 않는다면 자유로울것이라고까지 떠벌였는데 이것은 신자유주의자들이 말하는 자유가 어떤것인가 하는것을 잘 보여주고있다.

황금만능의 자본주의사회에서 돈없는 가난한 근로대중이 자유를 누린다는것은 말도 되지 않는다.

신자유주의자들의 주장대로 하면 돈한푼 없이 굶으면서도 누구도 내가 먹는것을 방

해하지는 않으니까 나는 자유롭다고 생각하라는 것이며 결국 그들이 떠드는 자유란 굶을 자유, 죽을 자유의 다른것이 아니다.

약육강식의 생존방식이 제도화되어있는 자본주의사회에서 근로대중의 진정한 자유와 권리는 절대로 보장될수 없다.

극소수 특권층과 자본가들은 돈을 물쓰듯 하면서 부유하고 호화로운 생활을 하지만 근로대중은 죽지 못해 살아가고있는것이 자본주의사회이다. 자료에 의하면 미국에서는 인구의 1%에 해당되는 특권층이 국가재부의 약 40%를 장악하고있으며 미국인구의 0.002% 밖에 안되는 억만장자들은 국내총재산의 45%를 차지하고있다.

모든 생산수단과 국가권력이 착취계급의 손에 쥐여져있는 자본주의사회에서는 근로자들이 자기의 로동력을 자본가들에게 팔지 않고서는 살아갈수 없으며时时각각으로 생존의 협박을 받을수밖에 없게 되어있다.

자유가 인간의 능력과 분리되어야 한다는 신자유주의자들의 주장은 억압받고 무권리한 근로인민대중을 무능력한 존재로 만들어 자본의 노복으로 되게 하려는데 그 반동적목적이 있다.

오늘 자본주의사회에서는 근로인민대중이 국가와 사회의 주인은 고사하고 권력의 희생물, 상품화된 로동력으로서 압제와 착취의 대상으로 되고있다. 근로하는 인민들은 초보적인 로동의 권리마저 보장받지 못하고있는 형편이며 설사 일자리를 얻었다고 해도 언제 해고당할지 몰라 불안속에 살고있다. 아무리 병이 위급해도 돈이 없으면 치료받을수 없고 죽어야만 하는것이 다름아닌 자본주의사회이다.

자본주의사회에서 자유란 돈있고 권세있는 특권계급만이 누릴수 있는 자유이며 근로대중에게 그 무슨 자유가 있다면 그것은 오직 자본가계급에게 복종할 《자유》, 노예의 《자유》, 혈벗고 굶주릴수 있는 《자유》뿐이다.

우리들은 자유에 대하여 떠벌이는 신자유주의적견해의 반동성을 똑똑히 알고 참다운 자유가 철저히 보장되고있는 우리 식 사회주의를 더욱 튼튼히 지키고 빛내어나가기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할것이다.